

“사람이 먼저”... 교통정책 보행자 중심 전환

속도제한 30km/h 구역서 위반하면 ‘벌점 2배’

2021년까지 보행자 사망사고 42% 줄이기로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수준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1년까지 42%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속도제한이 30km/h인 ‘30구역’에서 주요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현행보다 2배 많은 벌점을 부과하는 등 교통환경을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법정부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29위에 머물러 있다.

특히 노인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수는 14.4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3.0명)의 4.8배, 어린이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수는 0.44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0.3명) 대비 1.5배에 달한다.

이런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정부는 보행자 통행량이 많고 사고가 빈번한 주택가, 상가밀집 지역 등 생활권 이면도로에

서 운행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하는 ‘30구역’ 지정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30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운전자가 속도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등 주요 법규를 위반할 경우 현행보다 2배 높은 벌점이 부과된다.

또, 구간별로 30~50km/h로 각각 제한속도가 달랐던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는 50km/h로 일괄 조정하고, 왕복 2차로 이하 이면도로는 30km/h 이하로 설정된다.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현재보다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갱신이나 적성검사 때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보행

밀집지역 사거리에 일부 설치된 횡단보도가 사거리 전체에 ‘모’자로 들어설 수 있도록 교통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보행시간 단축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된 사거리 내 ‘X’자 횡단보도 설치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야간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주변에 보행자가 잘 보이도록 하는 ‘투광기’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최근 사용자가 늘고 있는 전동킥보드, 전동 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 이동 속도제한, 이용가능한 도로 등을 담은 안전 통행기준을 정립하고, 관계기관과 이같은 이동수단에 대해 보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최근 사용자가 늘고 있는 전동킥보드, 전동 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 이동 속도제한, 이용가능한 도로 등을 담은 안전 통행기준을 정립하고, 관계기관과 이같은 이동수단에 대해 보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청소년 노동인권 ‘사각’ 34% 최저임금 못받아

광주지역 아르바이트 청소년 10명 중 3.4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노동을 착취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었고 근무 중 폭행, 또는 성희롱을 당한 청소년도 적지 않았다.

광주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와 광주교육정책연구소가 지난 6월 지역 중·고교생 등 2797명을 대상으로 ‘청소년노동인권 인식 및 노동실태조사’를 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최저임금인 시급 6470원 이하를 받은 비율이 34%였다.

지난해 기준 전국 평균 최저임금 미지급 비율은 25.8%였다. 또 업무·급여·근로시간 등이 모두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청소년은 40.7%였다. 59.3%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필요한 내용이 모두 적혔는지 모른다거나 일부만 포함됐다고 답했다.

특히 아르바이트 도중 다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0.2%였고 이중 산재보험처리를 받은 청소년은 10.7%에 불과했다.

일을 하면서 욕설·폭행 등을 당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0.3%로 나타났으며 성희롱·성폭력 등 성적 피해를 당한 청소년도 4%에 달했다.

‘아르바이트 도중 부당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했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 36.3%는 ‘그만 둔다’고 답했다. 이어 ‘참고 계속 일했다’고 답한 청소년은 30.8%, ‘방법을 몰라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답한 응답자도 7.7%에 달했다.

광주 지역 청소년 14.9%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전국 평균비율 11.3%보다 3.6%p 높은 수치다.

이들의 근무시간은 일주일에 3.4일로, 전국평균 2.8일보다 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종철 기자 golee@kwangju.co.kr



다문화주부들 ‘보름달 미소’

추석연휴를 앞둔 25일 광주시 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열린 ‘다문화가족 추석 한마당’ 행사에서 베트남 전통의상을 입은 이주여성들이 직접 만든 송편을 들여보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조선대 임시이사 파견’ 사분위 상정... 결과 ‘관심’

법인 이사회 공백이 장기화한 조선대학교 법인 임시이사 파견하는 안이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돼 결과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25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임시 이사를 조선대 법인에 파견하는 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현 조선대 법인 2기 이사회 체제로는 학내 갈등과 함께 이사회 파행이 거듭될 것으로 보고 교육 당국이 임시이사 파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조만간 임시이사 파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임시이사 파견으로 결정될 경우 명단도 함께 법인 측에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대 법인 2기 이사회는 지난 2월 25일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속 이사 선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 운영에 대한 구제단 측과 대학 구성원 간 시각 차이로 법인 이사회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구제단 측은 기존대로 이사 9명(개방이사 3명·구제단 측 이사 3명·교육부 학교 측 이사 3명)을 선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수·직원·총동창회로 구성된 대학자치운영협의회(대자협)와 1980년대 학내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졸업생들의 모임인 민주동우회 등 대학 구성원들은 공익형 이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가 임시이사 파견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공익형 이사회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이종철 기자 golee@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23 해질 18:24
달출 11:45 달짐 22:21

오늘도 낮더워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차차 흐려지겠다.

◇지역별 날씨(°C)

광주	흐림	18/29	보성	흐림	16/25
목포	흐림	20/27	순천	흐림	19/28
여수	흐림	20/26	영광	흐림	17/29
나주	흐림	17/29	진도	흐림	19/25
완도	흐림	20/26	진주	흐림	17/30
구례	흐림	14/28	군산	흐림	18/29
강진	흐림	18/27	남원	흐림	16/29
해남	흐림	18/27	속산도	흐림	19/23
장성	흐림	16/28			

◇바다 날씨

목적지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동	0.5~1.5	동	0.5~1.5
남부	남동	1.5~2.5	동	1.5~2.5
안남	남동	0.5~1.5	동	0.5~1.5
남해	남동	1.5~2.5	동	1.5~2.5
서부	남동	1.5~2.5	동	1.5~2.5

◇생활지수

- 위험: 식중독
- 보통: 자외선
- 낮음: 파부질현

◇물때

목포	간조	만조
	10:42	05:32
여수	간조	만조
	23:13	18:11
	05:47	12:23
	18:29	--:--

◇주간 날씨

27(수)	28(목)	29(금)	30(토)	10/1(일)	2(월)	3(화)
☁	☁	☁	☁	☁	☁	☁
21/25	17/26	13/24	14/26	14/26	17/23	18/24

택시로 자전거로...광주 문화·예술여행

시, 추석 연휴 프로그램 다채

광주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다양한 문화 행사를 마련한다. 광주시는 영화 ‘택시운전사’ 흥행을 계기로 광주를 찾는 탐방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추석연휴 기간 중 30~10월1일, 10월7~8일 등 주말마다 운영된다. 택시는 하루 2대의 택시가 투입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총 40회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역으로 돌아오는 방식이다.

광주시는 또 도심관광 트레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행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광주 출신 명사의 발자취를 따라 역사·문화·예술자원을 살펴보는 방식이다. 연휴 중 매주 토요일마다 ▲김현승의 플라타너스길 ▲허백련의 예술유람길 ▲정윤성의 음악산책길 ▲K-POP 아이돌골목길 ▲민주열사의 오월길 등 5개 코스가 운영되며 도심관광객들에게 사랑을 받는다. 참가비는 무이다.

코스는 광주송정역과 관천터미널에서 출발해 5·18자유공원~시청(힌즈페터 추모사건전)~국립5·18묘지~구 광주MBC~구 적십자병원~구 전남도청(민주광장)~금남로를 거쳐 다시 송정

역으로 돌아오는 방식이다. 자전거를 타고 도심여행도 떠날 수 있다. 광주시는 역사와 문화, 생태환경이 공존하는 빛고를 광주의 볼거리를 소개하기 위해 2015년 ‘훈이오빠’ 관광자전거를 도입했다. /오광복기자 kroh@

연휴때 활동보조인 도움 받는 장애인 부담↓

바우처 평일 단가로 사용

추석 연휴 기간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는 장애인의 비용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임시 공휴일과 대체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과 6일 이틀간 주간 시간(오전 6시~밤 10시)에 장애인 활동지원원 바우처를 쓸 경우, 평일 단가로 사용할 수

계 했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내달 2일과 6일에 바우처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평일 단가(시간당 9240원)로 결제하도록 하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휴일 단가(시간당 1만3860원)로 서비스 제공 비용을 받도록 했다. 비용지급 관련 구제처 내용은 사회보장정보원 대표번호 1566-3232(내선 4번)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공장·주유소·상가·교회·빌라·펜션·호텔

2017년 4월 26일 **한국전력공사** 공식발표!!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 태양광 설치시 전기요금 할인 제도!!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설치 가능하며 매달 내는 전기요금으로 해결됩니다

태양광을 이용하시면 60~80% 요금절약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 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시물, 모방물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